01 교회소식
우린 행복한 만민의 어린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우리 교회, 만민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2 생명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셔서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주 안에서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 성장도 가져올 수 있다.

04 간증
은혜의 삶을 살게 한 성결의 복음!
권능의 역사를 통해 은혜의 제단으로 인도받은 김성옥 집사와 성결을 사모하는 미국 알레샤 빌리코바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74호 2015년 2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시나요?"

봄을 기다리며 만개할 채비를 하는 꽃봉오리처럼 장차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만민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교장 김현진 전도사)는 연초부터 아동주일학교 주일 대예배 시 화상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천국' 설교를 들으며 요약 정리하고 있다. 또한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은 '변화를 꿈꾸는 행복한 도전! 비전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태복음·요한복음 통독, 즐거운 요리, 창조과학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달란트를 개발하고 꿈과 비전을 키우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집한 다양한 공과 교재인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십자가의 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등이 마련돼 재미있게 공과 공부를 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또한 만민의 어린이들은 GCN 방송(www.gcntv.org)의 어린이 프로그램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을 통해 재밌고 신나는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콩쥐팥쥐', '개미와 베짱이' 등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옛날 옛적에' 프로그램이 있어 즐겁고 행복하게 진리의 말씀을 양식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긋방긋', '천국'과 같은 만민찬양을 부르며 죄로 물든 세상에서도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심성을 키워가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 부설 만민선교원에서는 성경공부와 영어, 중국어를 비롯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 등 예능위원회와 연계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도 간증 있어요~

–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마크 레니어 피노'

"어머니는 제가 한 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 계셔서 저와 누나는 외갓집에서 자랐어요. 큰 이모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출석했는데, 예배 말씀과 찬양에 왠지 모를 기쁨이 넘쳤고 행복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으니 학교에 가는 것도 즐거워져 전교 5등 안에 들게 됐어요. 몸이 약한 저와 누나는 우기철이면 열감기를 자주 앓곤 했는데 교회 다닌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 없이 건강합니다. 늘 환자기도를 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해요."

– 몽골만민교회 '벌어르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만민선교원과 아동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 말씀과 기도 때문에 몽골에 와서도 무용대회, 마라톤대회, 교내 백일장 등 여러 분야에서 상을 타고, 작년에는 몽골학생총협회에서 선정한 '2014년 우수상'도 받았어요. 앞으로 예능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펠릭스 메토보'

"제가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가 생후 11개월이었어요. 저는 생후 6개월 때부터 말라리아와 폐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늘 병원에 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명호 목사님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토요일이면 노방 전도를 하며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만민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며 함께 부르면 다들 행복해해요."

– 캐나다 캘거리만민교회 '안수빈'

"저는 감기나 배가 아플 때에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마시면 금방 나아요. 저희 엄마도 맹장염을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로 치료받았어요. 저는 통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이 있어서 공부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새학기 첫달에 학교에서 '이달의 학생'으로 선정돼서 아주 기뻤어요."

– 일본 이다만민교회 '마츠시마 다이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산이 될 뻔했대요. 그런데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로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했을 때도 무안단물과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저는 당회장님의 저서 읽는 걸 참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
(민 14:6~11)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훨씬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를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지요. 과연 이스라엘은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했을까요?

1.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족장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과 소산들이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매우 건장했고 그 중에 특히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하찮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커서 공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은 정탐을 마치고 심히 낙담해 그 내용을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민수기 14장 2~3절에 "…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고백한 대로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결단코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 영적인 고백으로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현실만 보고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당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었지요. 마침내 백성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통함으로 옷을 찢으며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고자 했지요.

하나님께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백성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테스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보응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십 세가 되지 않은 후손들에게로 옮겨졌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한 열 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3.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

민수기 14장 3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가나안의 성읍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며 간곡히 만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도 이들은 굳이 가나안 산지를 공격했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끝났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녕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징계를 모면하고 잘못을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또 다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뼈저린 패배를 맛보고 결국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 유리하는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가 유력한 족장들 중 이백 오십 명을 꾀어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족 모두가 산 채로 음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아론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해 각각의 이름을 적은 후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두 개 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며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게 함으로 믿음을 심어 주고자 증거를 주시지요.

그러나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매일 먹는 만나에 싫증이 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출애굽할 때 어렸던 아이들이 장성해 이스라엘의 주축이 됐고 어느덧 40년의 기한이 거의 찼습니다. 이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다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므로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멸망했고, 모세와 아론 역시 그들의 머리 된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음 세대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 튼튼한 성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고백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범사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참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stress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은 '스트레스'(stress)이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초조, 피로 등의 정신적인 압박으로 무기력해지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잠시일 뿐,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신앙 안에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01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깨우쳐야 한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모든 사람은 죄의 삯으로 질병, 고통, 슬픔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롬 6:23)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요 14:2~3).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이기는 차원을 넘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02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으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됐다. 또한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쉼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지식과 지혜, 경륜을 믿고 앞서 가므로 스트레스가 쌓여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수 있다(빌 4:6~7). 이런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니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하시니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03 주일을 지키며 영육 간에 정기적인 안식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따라서 매주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영육 간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영적으로 잘 양식 삼아야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몸의 피로도 사라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영적인 안식을 취할 때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정기적으로 참된 안식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은 물론 영육 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04 성령 충만함으로 내적인 힘을 기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능히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서 곤한 몸이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몸이 가벼워진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혼의 작용을 차단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의 작용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적인 힘이 길러져 어떤 스트레스도 능히 이길 수 있다.

Tip

나는 어떤 유형일까?

1.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는 소극적인 사람은 큰 일 하기를 꺼려하므로 큰일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2.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게 된다.
3.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이를 소화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승리의 삶에서 기쁨을 체험한다.

201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2월22일~2월28일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3
- 신뢰
- 창세기 강해 3~7
- 생명의 씨 4
- 공간과 차원 6~7
- 믿음의 분량 6~10
- 요한일서 강해 9~3
- 요한계시록 강해 59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4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5 (이수진 목사)
- 말장이 2 (이미영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9 (이희선 목사)
- 생명수 2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9 / 열 재앙 15 (정구영 목사)
- 그 분이 이끄셨네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10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4
- English 15
- 플로리스트 3
- 옛날 옛적에 9
- 창조와 과학 5
- 흥겨운 소리 4
- 만민 지킴이 9
- 모두 드려요 23
- 내 마음의 찬양 5
- 즐거운 요리 25
- 뷰티풀 라이프 11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6
- 필리핀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성결의 복음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김성옥 집사 (64세, 중국 1교구)

저는 중국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십대 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났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며 ‘정녕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1997년 10월, 저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참석한 집회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매우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성가대 등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힘썼지요.

하지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스스로 영적 한계를 느끼게 됐고 제 마음은 갈급해졌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찾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2004년 10월,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에 관한 CD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제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려면 저런 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며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12회 이재록 목사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 테이프를 구할 수 있었지요.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인생들을 향한 섭리를 깨우치니 얼마나 기뻤는지요.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저는 만민중앙교회 성도로 등록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함께 인터넷 생방송(www.manmin.org)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은 가뭄에 단비를 맞듯 희열이 넘쳤고, 설교 말씀은 참으로 꿀맛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지요. 그 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이 더해졌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또한 저는 빈혈과 신장질환으로 몸이 붓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으며, 심장병과 위장병으로도 고통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심장병으로 인해 위독한 상황이었던 여동생도 만민중앙교회로 기도 요청을 해 한국에 계신 당회장님의 시공 초월한 기도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동생은 심장병은 물론 고혈압까지 치료받았으며, 조카는 무안단물을 바른 후 쌍꺼풀이 생겼지요. 뿐만 아니라 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받았고, 시댁의 조카딸은 우울증이 치료돼 가족 모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는 제가 그토록 사모하던 한국에 왔습니다. 8월에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당회장님의 말씀, 기도, 찬양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천국 소망이 넘쳤지요. 그 뒤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복님 원장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옳다 하는 것이 기준이 돼 상대를 쉽게 판단, 정죄하고 감정을 품는 등 악한 마음을 가진 채 충성한다고 했던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했지요. 그러자 무언가에 눌린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발견해 버리며 하나하나 행해 나가니 평안할 뿐 아니라 몸도 더욱 강건해졌지요.

하나님 뜻을 깨우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다니 매우 기뻐요”

알레샤 빌리코바 (36세,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저는 신학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8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에 궁금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의 악을 버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몰랐지요. 어떻게 죄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를 궁구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님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과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었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명쾌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지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성결의 복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